

작년 로또복권 판매액 역대 최고

작년 한 해 로또복권이 4조3천억원어치 넘게 팔리며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정부는 로또 판매점 증가와 인터넷 판매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로또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12일 '연합뉴스'가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4조3천1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인 2018년(3조9천687억 원)보다 8.8% 많다. 로또 판매가 4조 원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기재부의 실태조사 결과 작년 로또를 한 번이라도 샀다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62.4%였다. 전체 인구에 이 비율을 대입해보면 1인당 13만4천원어치를 샀다는 계산이 나온다.

추첨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복불복'이다.

지난해 52번의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이들은 507명, 이들의 당첨금 합계는 1조420억 원이었다. 하지만 1인당 당첨금의 편차는 상당히 컸다. 861회(6월 1일 추첨) 당첨자 4명은 각각 48억7천만 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이에 비해 876회(9월 14일 추첨) 1등 당첨자는 19명이나 나오면서 1인당 당첨 금액이 10억9천만 원에 그쳤다.

당첨금에 대한 세금이 3억원 이하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은 33%이다. 따라서 이들 19명이 각각 손에 쥔 당첨금



은 지난 1월 서울아파트 중위 가격(매매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 9억1천216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아파트 한 채를 사기 어렵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복권은 경기가 하강할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작년 판매량 기록을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잠정치)로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 측은 로또 판매와 경기의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2008년 이후 로또 판매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작년 판매점이 늘어나고 인터넷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사상 최대' 증가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역대 최대 폭 증가했다. 지난해 12·16부동산종합대책 시행 직전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겨레'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2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9조3천억 원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올해 1월(3조7천억 원)이나 지난해 2월(2조5천억 원)과 견줘도 증가 폭이 매우 가팔라졌다.

주택 거래와 입주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전보다 7조8천억 원 급증한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2015년 4월(8조 원) 이후 4년10개월 만에 최대이다. 주택 거래는 계약 뒤 대개 2~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수요로 이어진다. 한은은 "대부분 12·16대책 발표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 영향이 2월에도 계속 주택자금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경기도에서 주택 거래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포털 등의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만2천 건에서 올해 1월 6천 건으로

췌인 반면, 경기도의 같은 기간 거래량은 1만8천 건에서 2만1천 건으로 늘었다. 신규 입주 물량 증가도 대출 수요를 늘렸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지난해 11월 7천호에서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 2월에는 2만3천 호에 달했다.

전세자금대출도 3조7천억 원 급증했다.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고가 주택 등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 올해 1월 말 직전에 '막자'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5만3천 건에서 올 1월 17만4천 건으로 늘었다.

일반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주택 관련 자금 수요 영향 등으로 1조5천억 원 늘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갈아탄 대출 규모는 1조 원에 달했다. 비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1천억 원으로 2018년 10월(10조4천억 원) 이래 최대였다.

한은은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월 이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 들어 주택시장에서 서울과 여타 지역 간 차별화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DPOINT REALTY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p>플러튼</p> <p>\$549,000</p> <p>단층 단독주택 방3 화2 1641 sqft 넓은대지 6800sqft 탁트인 집안구조 플러튼 통합교육구</p>	<p>플러튼</p> <p>\$449,000</p> <p>민기힘든 가격의 방2 화2 1250sqft 콘도/타운하우스 단층구조 두개의 아주 넓은 마스터 룸(en suite bathroom) 휴양지에 온듯한 쾌적한 환경의 콘도 브레이크 룸, CSUF가까운 거리 트로이학군</p>	<p>플러튼</p> <p>\$449,000</p> <p>타운하우스 방2 화2 아주 cozy한 마당, 새마루, 새부엌, 그레이트카운터탑 새 워터히터, 넓게 트인 거실, 최고의 학군 라구나로드, 팩스 서니힐스 하이, Move in/ Turn key</p>	<p>라미라다</p> <p>\$497,000</p> <p>많은 분들이 선호 하시는 힐스보로 타운하우스 방2 + Den 화2 아주 넓은 탁트인 실내구조 코너 끝 유닛</p>
<p>USC / Downtown 근처 3 unit</p> <p>\$695,000</p> <p>#1 방4 화2 #2 방1 화1 #3 방1 화1 인컴이 너무 인컴 매물입니다 현재 인컴 \$5,100 Cap 6.5%</p>	<p>LA Downtown/USC 근처 Duplex</p> <p>\$679,000</p> <p>집전체 리모델링 한 turn key 1842sqft 4500대지 #1 방3 화1 1/2 #2 방1 화1</p>	<p>어바인</p> <p>\$869,000</p> <p>No-HOA No-Mello Roos 단독주택 단층집 1650sqft 방4 화2 아늑하고 조용한 Cul-de-sac위치, 최고의 학군</p>	<p>어바인</p> <p>\$688,000</p> <p>타운하우스 방3 화3 초중고 도보거리 최고의 학군, 모던한 실내 업그레이드 된 부엌과 목욕탕 Turn Key</p>
<p>RSM 어바인 근처</p> <p>\$495,000</p> <p>랜초 산타마가리따 타운홈 방2 화2 2car garage 싱글홈 느낌의 타운홈 Move in condition Top rated Schools</p>	<p>RSM 어바인 근처</p> <p>\$360,000</p> <p>랜초 산타마가리따 방2 화2 리모델링한 부엌 그레이트카운터탑 New Appliances 단지</p>	<p>South Gate 6units</p> <p>\$1,480,000</p> <p>인컴 매물 5.7% cap rate, 5- 방2 화1 1-방1 화1 리모델링 끝낸 건물</p>	<p>사업체**식당</p> <p>오렌지카운티 터스틴 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이상 순이익 2만불 \$600,000</p>

주택,상가,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캘리지 카운셀러

Member of NAR, CAR, PW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
Buena Park: 6561 Beach blvd
Los Angeles: 3435 Wilshire blvd #1828